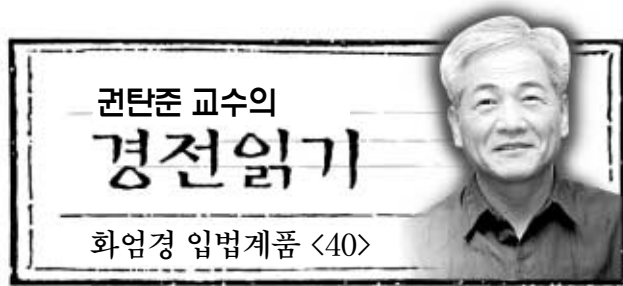


선재등자가 다음으로 찾아가는 선지식은 남쪽 광대국(廣大國)이라고 하는 나라의 향을 파는 장자(長者) 장자인데, 그 이름이 우발라화(優鉢羅華) 蓮華라고 한다. 선재등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는 세속적인 욕망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직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불국토를 깨끗이 하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보살의 공덕바다를 닦아 모으며, 모든 겁마다 큰 서원으로 보살행을 닦기를 원하는 등 이와 같은 모든 불보살의 공덕을 일심으로 구하게 되었다. 육향 장자를 찾아가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아서 일체(一切)의 지혜를 내는 법을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향을 잘 분별하여 알며, 모든 향을 조화하여 만드는 법을 안다. 이른바 모든 향, 모든 사르는 향, 모든 바르는 향, 모든 가루향이며 이런 향이 나는 곳도 안다.

또한 병을 다스리는 향, 나쁜 짓을 끊는 향, 환희한 마음을 내는 향, 번뇌를 없애는 향, 번뇌를 없애는 향, 환이 있는 법(法)에 애착을 내게 하는 향, 환이 있는 법에 싫은 생각을 내게 하는 향, 모든 교만과 방일을 버리는 향, 마음을 내어 열불하는 향, 법문을 이해하는 향, 성인이 받아 쓰는 향, 모든 보살의 차별한 향, 모든 보살의 지위의 향을 잘 분별하여 안다. 이런 향의 형상과 생기는 일과 나타나고 성취함과 정정하고 편안함과 방편과 경계와 위덕과 작용과 근본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통달하고 있다.

선남자여, 인간세상에 향이 있는데 이름은 상징(象藏)이다. 그 향기를 맡은 중생은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40>

육향 장자의 법문

“나는 썩 화합하는 법을 알뿐이다”

실체없는 선근과 자비로 중생교화

몸과 마음이 쾌락해지며, 병환이 진노하지 못하고 모든 근심이 없어져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뜻이 정정하여 진다. 나는 그것을 알고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게 한다. 마리아산에서는 전단향이 나는데 이름은 우두(牛頭)이다. 몸에 바르면 불구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바닷속에 향이 있으니 이름이 무능승(無能勝)이다. 만약 북이나 소라에 바르면 소리가 날 적에 모든 적군들이 물러간다. 아나바달다못가에 서는 진수향이 나는데 이름은 연화장(蓮華藏)이다. 그 향의 한 개를 삼치만치를 태워도 향기가 염부제에 풍기며, 중생들이 맡으면 모든 죄를 여고 계행이 정정하여 진다. 실선에 향이 있으니 이름은 아로

나니라 한다. 중생이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결정되어 물드는 집착을 여며, 내가 법을 말하면 때 여인 삼매(禪三昧)를 얻지 못하는 이가 없다. 선법전(善法天)에 향이 있으니 이름은 정장엄(淨莊嚴)이다. 한 개만 피워서 풍겨도 여러 하늘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생각하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향을 화합하는 법을 알 뿐이다.”

육향 장자의 법문은 향 만드는 법에 관한 것이다. 육향 장자는 향에 관한 전문가이다. 그는 세간의 여러 가지 향 외에도 병을 다스리는 향, 나쁜 짓을 끊는 향, 모든 교만과 방일을 버리는 향, 마음을 내어 열불하는 향 등을 알고, 그것을 조화(調和)하는 법, 형상, 생기는 법 등을 알아서 정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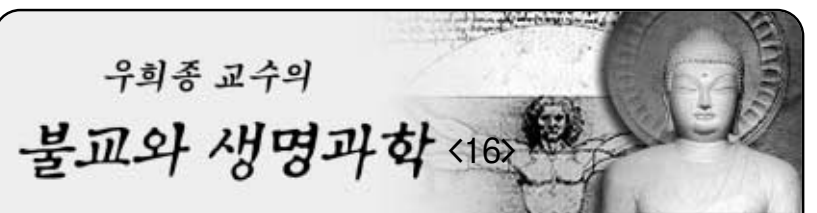
고 평안한 방편의 경계를 성취한다고 한다.

선재등자가 변형 외도의 가르침에 따라 육향 장자를 찾아가는 도중에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불국토를 깨끗이 하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하는 등 열한 가지 원을 일으키는 것은 보살행이 열 가지 바라밀행에서 회향(回向)으로 전환해 나아가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회향의 성격이 원심(願心)으로서 대원(大願)의 으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향이 향으로 상징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면서도 여러 가지 좋은 기분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온갖 선을 일으키게 하고 악을 없애는 기능을 한다. 대원(大願)의 회향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으면서도 한량없는 선근을 일으켜서 한량없는 지혜의 구름을 일으키고 회고 깨끗한 법우(法雨)를 내리며, 한량없는 자비행을 행해서 중생을 교화하여 괴로움을 없애게 하고 보리심을 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원의 회향의 향은 지혜와 자비를 응화해서 무아제재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설하고 있는 육향 장자의 이름은 우발라화(정련화)이다. 그것은 보살이 대원의 회향력을 지님으로써 생사의 진흙 속에서도 부처님의 경계를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명칭이 광대(廣大)인 것 또한 회향의 원행(願行)이 광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6>

화병과 현대의학

최근 한국의 화병이 정식 정신질환으로 인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 시달리고 있는 우울증의 특효약으로 프로자크(Prozac)이란 약물이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던 기억도 있다. 뇌생리학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생체 물질이 밝혀지면서 이미 정신신경과에서도 많은 정신 질환에 약물치료가 일반화 되었다. 서양 과학의 환원론적 관점이 팽배한 현대는 약물로 감정이나 마음을 얼마든지

태어나서 의식을 지니게 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육신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자신의 의식이 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

따라서 예술, 과학에의 열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소위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나 대상에 대한 이러한 상황이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막연하나마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상하게 된다. 그래서 비탄에 빠지거나 분노하게 되고, 자신의 근원적 외로움을 들여다 보아 풀어 가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난할 만한 대상을 찾아 밖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듯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닌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한 분노는 매우 지속적이며 깊어져 주위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

분노 깊어지면 자신 파괴하기도

항상 되돌아보고 깨어있어야 해결

만 동시에 개체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건 하지 못하건 개인(個人)이라는 자신의 존재의 한계와 모순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존재하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수반하는 외로움 또는 슬픔으로 감지된다.

생물체의 행동이나 문화활동마저 유전자의 소산으로 보는 사회생물학자(Sociobiologist)들은 찬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능이 높은 영장류들일수록 집단사회를 이루는 것은 생존의 편리함 외에도 나라고 하는 자의식의 발달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개인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집단에 속함으로써 잠시 위로를 받는다. 이성의 사랑을 통해서도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룰 수 있고 돈, 명예, 권력이라는 대상을 통해 해소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기 자신을 파괴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왜 단절되고 소외되었다고 착각하게 되어 이토록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 없이 현대 정신의학이 단순히 증상이 조금 심각한 사람만을 비정상이라 규정하는 후, 그러한 질병을 단순한 약물치료를 처방할 수 있다고 하는 유행적 발상만으로 접근하는 한 한국인의 화병, 더 나아가 인류의 마음의 고통에 대한 단순한 대증요법이 될 뿐이다.

우리 불자는 항상 깨어 있어 단절과 소외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상(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속는 줄 알면서 속아주는 마음으로 일상의 희노애락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지금까지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는 선종의 교의에 담긴 뜻을 나름대로 읽어보았다. 선종에서는 세상의 근본문제를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로 수렴시켜 진단하였다.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사의 문제이고, 생사의 근원은 무명번뇌라는 것이 십이연기설로 대변되는 불교 일반의 진단이다. 선종에서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더 꼭 집어서 말한다. 무명번뇌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이며, 무명번뇌 그 자체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무명번뇌를 없애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달랠 것이고 그것이 없는 경지 또한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펼쳐진다. 모든 것을 개체와 개별 현상으로 분별하고 분별적인 틀로만 보면 생사가 엄연히 있다. 그러나 삼라만상을 다 싸잡아 보듬는 전체의 장에서 보면 개체의 생사, 개별 현상의 생멸은 다 그 속에 녹아버리고 모두가 연기(緣起)일 뿐이다.

그러면 생사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비밀과 열쇠가 사람 마음에 들어있으니 바로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 '직지인심'이라는 선종의 교의이다. 거기에 함께 붙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말도 그 연경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견성



선의 세계 13

견성성불(見性成佛)-1

은 견자본성(見自本性),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본다는 말을 줄인 것이라고 풀이된다. 여기서 '자신'이란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중생을 가리킨다. 모든 중생의 본래 성품이 무엇인가에 그것을 보면 부처가 된다고 할까? 전의 글

이 실상은 공(空)이듯이, 무명번뇌도 마찬가지로 공이다. 즉 중생과 부처를 가르는 근본적인 연유가 본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중생과 부처는 본래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로 귀착된다. 그런 뜻을 담은 개념이 이른바 본각(本

본래부터 부처였음을 알아차리라

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생의 본래 성품은 불성(佛性)이라는 것이 대승불교 사상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이다. 중생의 본래 성품은 부처의 성품이라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얘기가 된다. 어찌하여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건가? 중생과 부처가 다른 근본적인 연유는 무명번뇌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엄연히 개별적인 실체라 여기는 모든 존재와 현상

들이다. 중생은 본래 깨쳐 있다, 즉 본래 부처라는 것이다. 현대, 중생이 본래 부처라 해도 지금은 엄연히 중생일 뿐이 아니라는 의심도 든다. 아무리 무명번뇌가 본래 공이요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해도, 중생이 부처가 아니라 중생으로 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한 현실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기는 그렇다.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의 글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듯이 그것이 숨어있고 가려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중생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중생인 줄로만 알고 중생으로서만 마음을 쓰며 살아오고 있다. 불각(不覺), 즉 깨치지 못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부처인 그 정체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불각의 상태를 타개하는 사건이 필요하다. 그 사건을 일컬어 시각(始覺)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각에서 깨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이 본래 깨쳐 있었음을, 본래부터 부처였음을 깨칠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처가 아니었다가 깨짐으로써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릴 뿐이다. 견성성불,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면 부처가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꾸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차림으로써 그야말로 부처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다. 이 본각, 불각, 시각 이야기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나오는데, 그럴 듯하면 서도 들여다볼수록 아리송하다. 어떤 대목이 아리송한지는 다음 회의 글에서 이야기를 잇기로 한다. ■유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2003년 가을 - 겨울, 중국/제주도 편)  
**고품격 성지순례! 실속 있는 기적!**

삼보에 귀의하옵고 판매가와 일체의 추가경비가 없습니다! (비자유금 No! 팁 No! 옵션 No) 기존의 여행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10/26-제주/마라도 8일 21만원  
◇11/2-상해/항주/보타산/낙가산 69만원

**중국 제1 불교왕국 관세음보살도량 75만원**  
- 상해 / 항주 / 보타산 / 낙가산 5일

**신라김교각 스님의 지장왕도량 79만원**  
- 남경 / 구화산 / 황산 / 항주 / 소주 5일

**구름의 불산보현보살 도량 - 79만원**  
- 아이산 / 낙산대불 / 대죽석각 5일

**문수보살도량 - 69만원**  
- 북경 / 만리장성 / 오대산 / 운강석굴

**제주 우도 / 마라도 / 제주 3일 - 27만원**  
\* 자유여행을 원하시는 분을 위한 할인항공권 및 호텔수배 도 해드립니다.

**(주) 행복만선 대표전화 021720-8490**

**스님과 함께하는 동양철학**

선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석진성스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지시 분별의 장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동양사상과 직관을 통한 일승법 즉 깨달음의 상승법을 통해 열어드립니다.

▶ 주 제 : 주역을 통한 시주 명리학과 한방역학  
▶ 개 강 : 2003년 10월 18일 (토요일)  
▶ 기 간 : 2003년 10월 18일 ~ 2004년 4월 17일 (6개월)  
▶ 시 간 :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강당  
\* 장소관개로 30명 선착순 모집

**동양의학방송국**  
http://www.dytv.co.kr  
☎ (02)588-1055 직통1016-433-5605  
서울시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4호선 사당역 11출구에서 3분거리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혜이탐과 앙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조상신과 중음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기가 세우고 세움을 같이 임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등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침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어떤 익한 중음신도 단병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병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 못 이루는 분
- 병마다 가귀놀리고 약병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동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지못한 행동을 한다든지, 병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력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간(肝)** 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와 비결만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마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한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황겨 97g마늘을 달인 뒤 황겨에 물을 붓고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 데 황겨가 다 타들어 가지기까지 고비 8-9일이 걸린다. 한달 분은 1.8리터이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착 (민속농원)